贈兵曹判書月恩君墓碑銘

月恩君의諱는亨孫이니 이나라 漢文學의 始祖라 推仰되는 文昌侯 孤雲 崔致遠先生의 後孫으로 高麗忠肅忠惠王때의 匡靖大夫 三司左使 和叔公諱 玄祐의 六世孫이며 贈領議政 文忠公 諱適의 曾孫이며 父는 贈參判諱 有恭이시며 母는 贈貞夫人 驪興閔氏이시니 配位貞夫人 平山朴氏는 經書에 能하고 美貌와 婦德을 兼全하여 窈窕淑女의 德이 있으며 不幸한 內助의 勿論 二男 二女를 生育하셨다 公은 世宗年間에 誕生하시어 弱冠以前에 儒學의 經典을 無不通曉하시며 模範的인 修行으로 聲聞이 籍籍하여 將來大器로 望이 있었으니 公은 늦은 나이에 武藝를 練磨하시어 武科에 及第하고 以後要職을 거쳐 長興都護府使를 除授받고 牧民官으로 治行이 卓越하고 世祖十三年李施愛가 謀叛하여 亂이 錦生하매 北伐軍中의 한 將軍으로 出師하여 主力叛軍을 平討하였다 그러나 散發的인 殘徒의 出沒로 國政과 民生이 不安하매 北道安定을 爲해 朝廷에서 公에게 適任資格으로 永興都護府使를 命하였다 公은 王命을 받고 永興에 赴任하여 殘徒를 鎭撫하고 平安을 回復하니 이 功으로 勳에 按擢되고 그 後 兵曹參判에 이르다 公은 卓越한 經綸과 뛰어난 智略과 德으로 愛民善政하고 防賊撫衆한 官職遂行의 一方 그 世敎育에 心血을 傾注하셨으니 長子 漢源은 諫軍이요 次子 漢卿은 清國功臣으로 六道兵使를 歷任하고 知中樞府事 贈 林君